

코로나 여파 올 여름 휴가도 '북캉스'

등골 오싹한 추리·스릴러 등 장르소설 인기 힐링·쉽, '차박' 스토리 에세이 등도 독자들 관심

여름휴가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코로나 19 여파로 여행을 떠나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 여행 대신 집이나 실내 또는 편안한 공간에서 책을 읽는 '북캉스'를 즐기는 독자들이 많다.

언택트 휴가 트렌드가 지속되면서 긴 호흡을 갖고 읽을 수 있는 장편소설이나 스릴러, 공포 등을 다룬 장르 소설이 인기를 끌고 있다. 무더위를 잊는 데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는 소설만한 게 없다.

예스24에 따르면 소설 부문의 7월 판매 성장률은 전월 대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에 비해 8.5% 증가할 만큼 독자들의 선호도가 높다.

특히 정유정 작가의 신작 '완전한 행복'을 비롯해 이미에 작가의 '달려구트 꿈 백화점', '미드나잇 라이브러리' 등의 소설이 인기를 끌고 있다.

그동안 정유정 작가는 '내 인생의 스프링 캠프', '내 심장을 쫓아', '7년의 밤', '28' 등 발표하는 작품마다 자신의 이름을 각인시키며 한국문학의 대체 불가능 작가로 발돋움했다. 이번 장편 '완전한 행복' 또한 정 작가 특유의 서사 기법이 잘 녹아 있는 소설이다. 속도감 있는 문장과 치밀한 플롯, 생생한 묘사와 인간 심연을 꿰뚫어보는 통찰력 등은 여전하다.

작품은 외판 시골집에서 늙은 오리들의 먹이를 만드는 한 여자와 그녀를 둘러싼 인물들의 이

야기를 그렸다. 여자 외에 그녀의 딸, 그리고 그 집을 찾은 한 남자 등 세 명을 중심으로 서사가 전개된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추구하는 행복이 다른 이들은 서서히 불협화음 속으로 빠져든다. 과거의 오리 울음소리와 맞물리는 불안의 그림자는 점점 이들을 어둠으로 밀어낸다.

이미에 작가의 '달려구트 꿈 백화점'은 가슴 뭉클한 판타지 소설이다. 잠들어야만 입장할 수 있는 독특한 마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곳은 꿈을 모아 판매하는 '달려구트의 꿈 백화점'. 긴 잠을 자는 사람들 뿐 아니라 짧은 낮잠을 자는 사람들로 매일매일 대성황을 이룬다. 범상치 않은 혈통의 주인공 '달려구트', 그리고 그의 최측근에서 일하게 된 신참 직원 '페니' 등이 등장한다.

그러나 여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분야가 추리, 미스터리, 스릴러 등의 장르 소설이다. 등골을 오싹하게 하는 내용으로 무더위를 가시게 해주는 이야기는 시원한 여름휴가를 보내기 위한 필수 아이템으로 부족함이 없다.

최근 5년간 7월의 추리와 미스터리, 공포, 스릴러 소설의 예스24 도서 판매 성장률을 분석한 결과 지난 6월 대비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 7월에도 전월 대비 15.5% 증가하며 역시 여름은 장르소설의 계절이라는 사실을 특별히 각인시켰다.(2017년

24.75, 2018년 45.40%, 2019년 14.10%, 2020년 14.30% 증가)

야쿠마루 가루와 히가시노 게이고, 요 네스비 등 인기 작가들의 기존 작품들과 새롭게 출간된 신작들이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다. 2019년과 2020년에도 이들 작가들의 작품은 상위권에 랭크됐다. 그 가운데 히가시노 게이고의 소설 '가면산장 살인사건', '용의자 X의 헌신' 등은 베스트셀러에 다수가 랭크돼 두터운 팬층을 보여줬다.

코로나 탓에 여행이 부담스러운 이들이 선택하는 '차박' 여행을 소개하는 책들도 독자들의 관심이 높다. 일상 속 여행의 설렘을 느끼고 자연과 함께 즐기기 위한 도서로 힐링, 여행 에세이만한 게 없다.

예스24 김태희 에세이 MD는 정세 랑 작가의 '지구인만큼 지구를 사랑할 순 없어', 김민철 작가의 '우리는 우리를 잊지 못하고', 이소영 작가의 '식물과 나' 등을 추천했다.

정세 랑의 '지구인만큼 지구를 사랑할 순 없어'는 뉴욕, 오사카, 타이페이, 런던으로 떠났던 과거 여행에서 만난 특별한 순간을 담았다. 무엇보다 과거와 미래를 아우르며 우리시대에 고민해야 부분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아우르고 있어 잔잔한 울림을 준다.

이소영의 '식물과 나'는 식물과 함께한 삶 나아가 식물이 알게 해준 인연을 이야기한다. 저자에게 식물은 삶의 소중한 순간을 함께 기억해주는 존재를 넘어 인생을 함께하는 존재로 다가온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페

지난달 중순, 광주동구에술여행센터는 한국 여행작가협회와 공동으로 동구의 명소들을 소개하는 팸투어를 진행했다. SNS나 블로그 등을 통해 명성을 얻고 있는 여행작가 20여 명이 무등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일빌딩, 광주폴리 등을 둘러 보며 동구의 숨겨진 매력을 체험했다. 얼마 후, 동구에술여행센터가 팸투어를 마친 이들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예상밖의 '결과'가 나왔다. 가장 인상적인 장소를 묻는 질문에 대부분이 '광주폴리'를 꼽았기 때문이다. 다른 장소들에 비해 인지도가 낮은 폴리가 외국인들의 눈에는 광주의 색깔을 지닌 공간으로 비쳐진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폴리의 매력은 무엇일까. 바로 차별성과 정체성이다. 피

선공약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가 동구와 광산구에 추진하는 '트윈타워'다. 1962년 미국 시애틀의 세계박람회 유산으로 건립된 '스페이스 니들'(Space Needle·184m)보다 더 아름다운 초고층 건물을 짓겠다는 것이다.

물론 상하이의 동방명주, 파리의 에펠탑 등 외국의 도시에는 뛰어난 건축미를 자랑하는 랜드마크가 많다. 이 때문에 국내 각 지자체는 관광 유치를 도시 브랜드 효과를 노린 랜드마크를 경쟁적으로 건립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 대선공약에 맞춰 광주시가 공을 들이는 '트윈타워'는 기대 보다는 걱정이 앞선다. 무엇보다 정체성이다. 과연 이 거대한 쌍둥이 타워가 민주·인권·평화라는 광주의 이미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광주에 초고층 '트윈타워'가 들어선다면

터 아이젠만 등 세계적인 거장들의 건축조형물인 폴리는 국내에서는 보기 힘든 광주만의 콘텐츠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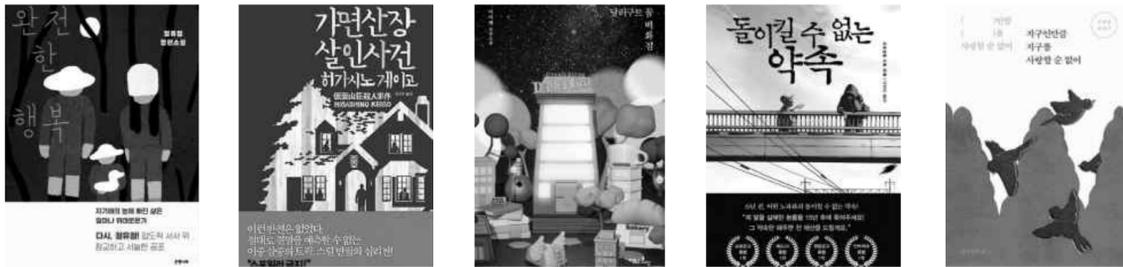
지난 2011년 쇠락한 구 도심에 되살리기 위한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프로젝트 일환으로 옛 광주읍성터에 10개가 들어선 이후 광주의 정체성과 공간개념을 도입한 2차 폴리, '도시의 일상성-맛과 멋'을 주제로 한 3차 폴리까지 30여 개가 동구와 광주시 전역에 설치됐다. 이같은 폴리의 변신은 도시재생의 모범사례로 떠올랐고, 3차 광주폴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2017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최근 광주 문화계 일각에서 떠어난 '랜드마크'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26일 광주전남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제20대 대선공약 시민 토론회'에서 외국의 유명 건물을 본뜬, 정체성이 모호한 랜드마크 구축사업들이 광주시의 대

특히 근래 랜드마크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는 점도 이런 우려를 뒷받침한다. 한때 하늘을 찌를듯한 건축물이 대세였지만 막대한 비용과 무분별한 개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주변 경관과 시민소통을 배려하는 '공적 공간'이 새로운 랜드마크로 부상하고 있어서다. 폐선부지를 '문화적으로' 되살려낸 뉴욕의 하이라인파크나 수명다한 화력발전소를 리모델링한 런던의 테이트모던 미술관이 그런 경우다.

만약 광주를 상징하는 랜드마크를 찾는다면 광주의 거리를 천천히 돌아보라. 폐선부지에 문화를 접목한 '푸른길'에서부터 세계적 거장의 조형물인 30여 개의 광주폴리 등 숨겨진 보석들이 많다. 중요한 건 잠재력 있는 '구슬'을 발견해 가치를 부여하고 '브랜드'로 키우는 시의 의지와 관심이다. 어쩌면 '광주다운' 랜드마크는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을 지 모른다.

<제작국장·문화선임기자>



제6회 동주문학상 이달 31일까지 공모

상금 1000만원...수상자 9월 발표

광주일보와 계간 '시산맥'이 제 6회 동주문학상(상금 1000만원) 작품집을 오는 8월 31일까지 공모한다.

동주문학상은 지난 2016년 윤동주 시인의 '서시'에 담긴 시정신을 구현하고 이를 널리 확산하기 위해 광주일보와 계간 '시산맥'이 제정한 운동주서시문학상이다.

지난 2019년 동주문학상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공모 작품도 시집 한권 분량으로 확대했으며 운동주의 삶과 문학정신을 잇고 창작 활성화를 견인한



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인 공모 요령은 오는 8월 31일까지 시집발간형식으로 정리한 원고(시 50편 이상)를 메일(dalssoo@hanmail.net)로 보내면 된다. 제목, 약력, 목차, 본문(1~4부) 편성해 하나의 한글파일로 첨부해야 하며 향후 수상작품집은 '달을 쏘다' 시인선으로 발간될 예정이다.

응모 자격은 제한이 없으며 수상자는 오는 9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계간 '시산맥' 겨울호에 수상자를 게재할 예정이다.

심사는 예심과 본심으로 나눠 진행되며 예심 심의위원, 본심 심사위원을 별도 위촉해 진행된다. 아울러 응모한 시집 가운데 우수한 시집 원고는 저자와 상의해 시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한편 지금까지 진행된 동주문학상 역대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이경림 시인(2016년), 오태환 시인(2017년), 전동균 시인(2018년), 정현우 시인(2019년), 김룡·강주 시인(2020년). 문의 02-764-8722, 010-8894-8722.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아시아문화전당, 8월 'ACC 하늘마당 권역 여행'

7~28일 매주 수·토요일 실시

오는 11월까지 매일 ACC 야외 권역을 산책하며 아시아 각국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ACC 특별투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아시아문화전당이 8월에는 'ACC 하늘마당 권역 여행'을 마련했다.

오는 7일을 시작으로 28일까지 매주 수·토요일(오후 2시 30분과 4시 30분) 모두 12차례 실시한다.

참여자는 ACC 야외공간 하늘마당에서부터 계절별 나무와 꽃의 의미를 해설사에게 들으며 예술극장까지 산책한다.

이러 라이브러리파크 대나무정원에서 인도네

시아 전통 수공예 기술로 제작된 바틱전을 활용해 카드지갑을 만든다.

9월 참가자는 어린이문화원의 상상마당 여행과 함께 태극 그리움(소원향초)을 만드는 경험을 한다. 잎과 꽃으로 소원 바구니를 장식하고 향초를 꽂아 나만의 향초를 가질 수 있다.

10월에는 예술극장과 하늘마당에서 인도 전통 요가의 기원과 동작을 배우며 명상을 즐기는 치유의 시간을 갖고, 11월에는 전당의 녹지섬을 산책하며 아시아권 나라의 전통차를 시음한다. 4일부터 ACC 누리집에서 예약. 1회당 참여 인원 8명 한정.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